

독서치료의 동력

김 정 근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jgunkim@yahoo.co.kr



가끔 독서치료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일에 비해 내거는 이름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취지인 것 같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처음은 그랬다. 처음은 거부감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지금은 대세에 따르고 있는 편이다.

차라리 '치료(治療)' 보다 '치유(治癒)' 면 어떠냐, '요법(療法)' 이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다. 표현의 강도를 약간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역시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의미하는 바가 저기가 저기인 것 같다. 다 테라피(therapy)의 번역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의 시점에서 내 생각은 이렇다. 번역에 따른 표현의 맛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 실사구시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너 나 없이 사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치료'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되 그 이름에 값하는 내용을 확보하는 일에 관계자들이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승산이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외국과는 사뭇 다르게 대안요법의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다. 시중에 독서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인문치료, 문학치료, 저널치료, 이야기치료, 원예치료, 향기치료 등 일일이 꼽자면 한이 없을 정도이다. 심지어 불교 사찰, 성당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치유법회, 치유상담, 치유목회도 인기를 모으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독서치료만 명칭 문제에 지나친 결벽성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는 또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표현에 신경을 쓰기보다 '내용을 확보하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쉽게 말해 '치료'라고 했으면 아픈 것이 낫거나 완화된다는 경험이 따르는 것을 일컫는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책을 통한 아픔의 일소 또는 경감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험의 요소는 따르지 않고 독서치료에 '관한'(about) 지식과 이론만 넘쳐난다면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의 확보 문제는 독서치료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용이 적절하게 담보되지 않으면 활동가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보아도 활동의 동력(driving force)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나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도 "내용=동력"의 등식이 성립하는 것 같다.

우선 동력이 붙지 않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이론이 어떻다', '역사가 어떻다', '유형이 어떻다', '원리가 어떻다', '목적과 가치가 어떻다', '과정과 방법이 어떻다', '자료가 어떻다', '치료자의 자격이 어떻다', '참여자가 어떻다', '서사가 어떻다', '텍스트의 구조가 어떻다' 라고 지루하게 내세우면서 지식을 일방적으로 흘려보내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계통이다. 이런 접근은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산란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주의할 점은 치유 효과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접근을 '지식형'(knowledge-oriented)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기형적 형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사교육시장을 무대로 하여 성행하는 것을 보면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볼모로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반면, 동력이 붙는 내용이라고 하면 그것은 단연 '체험형'(experience-oriented) 접근이다. 여기서는 지식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감동과 공감을 유도하고 변화와 치유의 체험이 발생하도록 기다린다. 이와 같은 효과는 전적으로 책을 매개로 하여 일어난다. 참여자와 책이 적극적인 모드와 역동적인 관계에서 서로 만나 만들어내는 신비한 효과인 것이다. 요즘 흔히 치유서(books for healing)라고 불리는 책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진행자가 의도된 거리(intended distance)를 유지하며 이끌어가는 동안에 참여자와 책 사이에서 치열한 조우가 일어나고 불꽃이 튀어 오른다. 참여자는 책의 내용에 따라 움직이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와 같은 과정은 자연스럽게 변화와 치유의 경험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산란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고 아프던 머리가 시원해지는 효과가 따른다.

그다음에 독서치료 활동의 동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차원의 국면이 있다. 어떤 국면에 들어섰을 때 동력이 생기는 반면 다른 국면에서는 동력이 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독서치료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조직과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독서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활동이 발을 붙이고 뿌리를 내리려면 활동가들의 입장에서 '전술적'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 게릴라를 좋게 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행태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다만 우리 사회의 독서치료 활동과 관련하여 얼른 그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상상력의 비약이 있기는 하지만) 무엇이 그들의 동력이 되고 있는가 하는 관심 때문이다. 몸에 지닌 식량과 무기도 별 것이 아니고 집이나 진지에 쌓아둔 보급과 무기 또한 빈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그 어디서 과연 그와 같은 막강한 힘이 동원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저절로 관심이 간다. 하이튼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그들은 세계 최강의 미군과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내며 장기전을 펼치고 있으니 나처럼 먼 거리에 있는 관찰자의 눈에도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나는 비전문가로서 순전히 텔레비전에서 본 것밖에 없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본다. 아프가니스탄 게릴라들의 동력의 근거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그들은 자생 전법(戰法)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기 싶다. 그들은 미군이

나 연합군과 같은 전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전법을 사용해가지고서야 무기와 물자가 달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가 되겠는가. 분명 그들은 미군이나 연합군에 없는 고유의 전법을 구사하고 있을 것이라는 심증이 간다.

틀림없이 케릴라들은 몸과 정신이 그 지역의 험한 산 깊은 계곡과 거기서 발전한 자연 마을을 기반으로 생존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그들의 다리는 밤길 도보와 바위산을 타기에 알맞게 단련되어 있을 것이며 몸은 바위굴에서의 불편한 잠을 견뎌낼 것이다. 그들은 마을 주민의 협조 내지 보호 가운데 작전을 펼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과학에서 흔히 말하는 '현실에 적합한'(relevant) 존재 양태를 띠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생명력의 근거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이 추론적인 이야기 가운데 딱 들어맞지는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서의 독서치료 활동과 상통하는 한 줄기 유사성과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독서치료 활동이 몸을 의탁할 환경이 현재로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고려해둘 필요가 있다. 가령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상정하기로 하자.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활동이 출발하려면 일이 어디서부터 풀리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본다. 첫째 관리자와 중간관리자의 승낙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순서가 따를 수 없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치료는 도서관 간부진이라고 하는 주어진 환경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활동가들의 손에 들려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도서관 간부진의 호감을 사려면 다른 무엇보다 관리차원의 '이해관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때 '이해관계'란 간부진의 입에서 '아하 이것은 내가 이해하는 그 무엇이다', '이것은 매우 좋은 것이다'라는 평언과 함께 호의적인 자세가 나오는 조건을 말한다. 그들이 친근감을 나타낼 때 일은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쉬운 말 같지만 이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대목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때 '이해관계'란 또한 '아하 이것이라면 도서관 프로그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간부진이 말할 수 있을 때 충족되는 것이다. 업무의 개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을 때 독서치료는 도서관의 관리직과 중간관리직이 선호하는 품목이 될 수 있다. 친숙한 느낌과 업무 개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해관계'의 조건이 결재 선에서 충족되면 머지않아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활동가들은 첫 번째 기회의 문턱을 넘어서게 된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동시에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져야 한다. 지역의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이 주관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들 나름의 '이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입에서 '재미있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면 그들의 '이익'이 보장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근심걱정이 사라졌다',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증언이 나오면 더욱 확실한 '이익'이 보장된 경우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활동가들은 두 번째 기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나 도서관의 관리자와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조직과 주민의 관습과 생리에 '적합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마치 케릴라들이 지형이 험한 산악지대에서 작전을 펼치려면 몸과 정신의 단련과 함께 지형지물에 적합한 비장의 전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독서치료 활동가들이 불리한 여건에서 도서관 간부진과 지역 주민의 호응을 사는 데 가능하면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전술이 있다. 그것은 쉽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영국 사람들은 저렇게 한다', '프랑스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한다'라는 식으로 외국을 등에 업고 위압적인 자세로 선언해버리는 것이다. 그

것은 자칫하면 가난하고 잘 못 먹어서 몸이 마른 사람에게 버터와 치즈를 먹으라고 일러주는 것과 같은 싱겁고 무책임한 처방이 되기 쉽다. 이제 한국의 현실에서 이런 식의 겁주기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라면 세상에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든 문제가 '수입학문'으로 단박에 해결이 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이 그와 같은 서구중추적 접근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전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가장 빨리 간부진을 소외시키고 지역 주민을 도망치게 하는 길이다. 간부들이 친숙하지도 않고 쉽게 이해할 수도 없으며 더욱이 우리 현실에 적합한지 여부가 불투명한 외국식을 쉽게 채택하려고 하겠는가. 설령 간부들이 채택했다손 치더라도 그 어색한 광대놀음을 지역 주민들이 과연 좋아하겠는가? 정말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동력이 금방 꺼지고 마는 접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일이다.

그동안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도 독서치료 활동은 토착적인 전술로 접근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이 외국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도 서로 같은 도서관이 아니며 주민도 서로 같은 주민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치료 활동가들은 자신의 기획력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형과 지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성공의 첩경이다. 그래야 간부진의 호감과 참여자들의 호응을 한꺼번에 이끌어낼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 모든 과정에서 활동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는 그냥 방치해두어도 무방한가? 그들은 오직 사명감에 불타 있어야 하고 희생을 각오해야만 하는가?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간부진과 주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이전에 활동가들 자신의 '이해관계'가 먼저 조정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그들의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실천 경험에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통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활동가들 자신이 '독서치료는 진행자 자신에게 좋다', '가정에도 보약이다',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된다'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될 때 달성되는 조건이다. 활동가들에게 이와 같은 확신이 서려면 '상처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의 경험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진행자는 선행의 경험자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상처입은 치유자'는 자신부터 독서치료의 수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남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지와 의욕이 저절로 생기고 그것이 어려운 조건을 뚫고 프로그램을 개척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움직이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먼저 보호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척하려고 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활동가라면 이런 뜻에서 전술적 사고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수입학문에서 아이디어를 부분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것을 통째로 들여온다거나 이미 외국에서 폐기된 안을 수입해 들어와 토양이 전혀 다른 우리 현실에 적용을 시도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접근이다. 그렇게 하면 무엇보다 관련을 가지는 사람들을 소외시켜버린다. 사람들을 멀리 내쫓아버리고 나면 되는 일이 없다. 게릴라들에게 험한 산과 마을이라고 하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듯이 독서치료 활동가들에게 도서관의 간부진과 주민은 프로그램의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의 간부진과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충족이야말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힘차게 밀고나갈 수 있는 동력의 근거가 된다. 거기다 활동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담보될 때 동력의 근거는 더욱 확실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학관계를 고려하면서 요즘 내가 독서치료의 마당에서 힘차게 외치는 구호는 '체험형은 앞으로, 지식형은 뒤로', '토착형은 앞으로, 수입형은 뒤로'라고 하는 것이다. ☺